

실내악 시리즈



시대와 함께한 아리랑

수없이 불리며
시대를 건너온 노래
아리랑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의 유산이자
민족의 노래
시대의 기록

한국인의 눈물과
희망을 담아 이어져온
아리랑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의병 아리랑

1900년대 초 의병 활동 : 잊히지 않는 외침, 저항의 선율

작·편곡 이현주

가야금 홍세린 해금 김현희 대아쟁 김민정 피리·태평소 전소영 대금 김희정

타악 최종희 허일두 첼로 정다원 피아노·신디사이저 김다원

※아리랑 선율에 의병 정신을 담은 창작곡으로 실존 민요가 아닌, 주제 중심의 음악적 재구성을 통해 항거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츠키 아리랑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의 후속 : 떠난 자들의 기억과 삶이 남은 노래

작·편곡 김영상

해금 김현희 피아노 김영상

춘천 아리랑

명성황후 시해와 의병 항쟁의 시작 : 저항의 시작, 노래로 싸우다

작·편곡 정혁

경기소리 김민지 양금 이주은 가야금 윤지현 생황 황다능 타악 남동현

상주 아리랑

일제 토지조사와 수탈의 시대 : 잃어버린 땅, 남겨진 노래

작·편곡 김현섭

가야금 홍세린 거문고 한나리 대금 이나래 해금 김현희 피리 성시영

생황 황다능 대아쟁 김상훈 타악 최종희 김태형

고려인의 아리랑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 실향과 디아스포라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

작·편곡 정혁

대금 이나래 대아쟁 김민정 피아노 정혁

광복군 아리랑

1940년대 무장 독립운동가 : 전선에서 부른 아리랑, 결의의 노래

작·편곡 김현섭

판소리 이정원 피리·태평소 성시영 타악 최종희 남동현 피아노 김현섭

아라리요

세계화 시대의 아리랑 : 세계로 흐르는 우리의 노래

작곡 이지수 편곡 김영상

소프라노 정서로 소아쟁 김민정 대아쟁 김상훈 해금 서은영 대금 강정아 생황 황다능

콘트라베이스 이준수 피아노 김영상

예술감독·지휘



이승헌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
출업(국악기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과정 수석
출업(국악지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 국악지휘 박사과정 수료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역임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역임

2025 SMTOWN 양상블



가야금	홍세린 수석	이주은(양금) 부수석	윤지현
거문고	한나리 수석		
대금	이나래 수석	강정아	김희정
해금	김현희 수석	서은영	부수석
피리(태평소)	성시영 수석	전소영	부수석
생황	황다능		
아쟁	김민정 수석	김상훈	부수석
타악	최종희 수석	남동현	부수석
		허일두	김태형

첼로 정다원 객원 콘트라베이스 이준수 객원 피아노·신디사이저 김다원 객원

협연



김민지 경기소리



이정원 판소리



정서로 소프라노



작곡가
김현섭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전문사 졸업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재학
제42회 대한민국작곡상 일반부 독창·독주부문 입상 및 청중상
서울특별시장표창, 금천구청장표창, 관악구청장표창 문화부문
제35회 온 나라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작곡부문 금상
제28회 김해가아금경연대회 일반부 작곡부문 대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영재원 출강
현 화성시 예술단(국악단) 예술감독



작곡가
김명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재학
제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제29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작곡부문 우수상
SM Classics 전속 작·편곡가
영화 '엄마를 만나는 날' 음악감독
2024 작곡발표회 '울림의 메아리'
2025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26집 편곡 참여



작곡가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작곡 및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UC리버사이드대학교 박사과정 수료(PhD Candidate,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작곡 및 다양한 음반 작·편곡가, 프로듀서 활동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음악부문 예술가 선정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 역임



작곡가
정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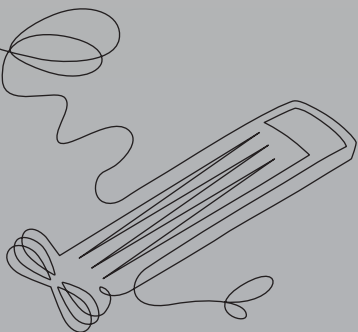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졸업
제14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선정
제42회 대한민국작곡상 대편성부문 우수상
제40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작곡부문 금상
제38회 동아콩쿠르 작곡부문 금상 및 전인평국악작곡상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등 위촉 및 협업

의병 아리랑

나라가 위태로웠던 시기,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무장을 들었다. 이들을 의병이라 부른다. 이름 없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용기와 희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은 우리 민족의 깊은 정서와 닿아 있다.

항일 의병들의 정신과 '민족의 한(恨)'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그들의 결연한 의지와 슬픔을, 아리랑 선율에 담아 전한다.

이 곡은 가평 보납산에서 전개된 항일 의병전쟁을 배경으로, 민족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우수한 민족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작곡된 <의병 아리랑> 1악장을 국악 양상을 편성으로 재구성했다. 이번 공연의 여섯 곡이 각 지역과 시대의 실존 민요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과 달리, 이 곡은 창작 아리랑으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정서를 음악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츠키 아리랑

‘이츠키 아리랑’은 일본 구마모토현 히토요시 분지 인근의 이츠키(五木)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1940년대 일본 민요 연구자들에 의해 재일 한국인의 영향을 받은 노래로 주목받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정착한 지역 중 하나가 이츠키였으며, 이들이 부르던 조선의 민요가 지역 민요로 일본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이츠키 아리랑은 ‘자장가’ 형식으로 불리며, 아기를 재우는 노래이자 동시에 당시 생활의 고단함 신세 타령을 담은 노래로 전해진다. 오늘날에는 그 지역의 전통 민요로 전승되고 있으나, 조선 유민의 정서와 삶의 기억이 배어 있는 민족적 흔적이 담긴 곡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작품은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작품의 서두는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츠키 아리랑의 불규칙 3박 계통의 선율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담담한 듯 미묘한 불안이 서린 정서가 점차 커져가 쌓여간다. 중심부에서는 본래의 자장가에 가까운 원형 선율이 부유하듯 흘러가며, 일본화된 이츠키 아리랑의 선율과 하나로 녹아든다. 후반부에 이르러 점차 한국 전통음악 악조로 전환되며, 본래 조선 유민들이 불렀을 노래의 원형을 상상하게 한다.

춘천 아리랑

1896년 벌업산 전투 이후 한말 의병전쟁기와 동학혁명기에 주로 불렀던 ‘춘천 아리랑’을 재구성하였다. 원류가 가진 메나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중모리 가락 형태와 후렴 형식은 거의 퇴색시켜 수평적이고 유려한 선율 구조를 형성하였고, 그 위에 여성 경기소리의 기술적·감성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류에는 없는 길로 변청 및 변조시키기도 하였다.

원류 가사 그리고 메나리토리에 내재된 한탄감, 설움 등의 정서가 적절히 표현되면서도,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여성 경기소리와 상통하는 악기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생황, 양금, 가야금 등 다소 색채적인 악기들이 경기소리와 조합되어, 원류 가사의 군사적 서사와 분노의 정서를 보다 절제되고 관념적인 방식으로 재해석·재배치하였다.

상주 아리랑

일제강점기, 이름조차 남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낸 상주의 들녘, 그마저도 빼앗겨야 했던 시대를 노래한다. 곡은 스산한 바람처럼 스며드는 불협화음의 긴장으로 문을 열며, 땅을 잃은 이들의 침묵과 억눌린 감정을 노래로 증언하고자 하였다. 서사 없이 흐르는 음악은 잃어버린 삶의 풍경들을 서서히 되살려내며, 그 풍경은 처절하게 아름답고, 시끄럽게 고독하다. 아리랑 선율이 피어나며 무너진 시간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이어지는 격렬한 고통은 고통을 삼키며 피어난 저항의 숨결을 토해낸다.

이 곡은 단지 슬픔을 회상하는 음악이 아니다. 아리랑은 여기서 억압된 역사의 증인이자, 잊히지 않는 땅의 노래이며, 꺼지지 않는 기억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꺼져간 숨결과 묻힌 외침이 이 음악 속에서 다시 피어나, 잊히지 않는 불꽃으로 남기를 바란다.

고려인의 아리랑

일렁이는 그리운 기억, 사무치는 노스텔지어, 낯설고 이질적인 새 땅과 그 위에 펼칠 새 삶.

작곡가 양방언의 <아리랑 로드 - 디아스포라> 5악장에서 발췌한 아리랑 선율을 주제로 하여, 실향민들이 품은 디아스포라의 정서를 여러 테마 속에 녹여 전개하였으며, 다소 일상적이고 소박한 시선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광복군의 아리랑

조국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걸고 떠났던 이들의 숨결을 따라가고자 한다. 돌아갈 땅도, 불러줄 이름도 없이, 오직 '해방'이라는 하나의 신념만을 품고 어둠을 향해 스스로 던졌던 수많은 이름들. 그들의 침묵과 절망, 의지와 희망은 지금도 바람처럼 훑날리고 있다.

곡은 전장의 먼지 속을 헤쳐나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작되며, 숨죽인 분노와 억눌린 울분, 망각 속에 묻힌 이름들의 외침이 겹겹이 쌓이며 낮게 진동하고, 점차 그것은 한 시대의 절규처럼 차오르다 끝내 터져 나온다. 이 순간, 아리랑은 고통을 끌어안은 깃발처럼 하늘에 휘날리고, 침묵은 격렬한 리듬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 곡은 전투의 승리를 기리는 것이 아닌, '끝내 지지 않겠다.'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외침이며, 침묵 속에서 자유를 노래로 일으켜 세운 이들의 맹세다. '광복군아리랑'은 여기서, 꺾이지 않는 투혼이자, 여전히 타오르는 역사 그 자체가 된다.

아라리요

본조 아리랑을 주제로 영화음악 작곡가 이지수가 작곡한 창작곡으로, 아리랑의 선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곡은 자유롭고 부강한 대한민국의 노래가 세계인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국경을 넘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아리랑의 보편성과 예술적 확장성을 담고 있다.

국악기의 음역과 배합을 고려한 편곡과 다채로운 편성으로, 아리랑이 동시대적 감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세계적인 음악 언어임을 보여준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한국의 혼이 담긴 선율: 전통과 현대를 잇고 미래로 흐른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1965년 국악관현악의 현대화·대중화·세계화를 목표로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전통음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창작곡을 선보이며 한국 음악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다채로운 관현악곡과 협주곡을 연주하고,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대중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국악관현악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로서 동시대 관객들과 공명하며,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갑니다.

단장	이승환
악장	김애라
가야금	홍세린 수석 이주은 부수석 최인영 이지연 윤지현
거문고	한나리 수석 김선효 부수석 김영임 김일호 정하은
대금	이나래 수석 변제남 김진성 김혜연 강정아 김희정
소금	권용미 부수석
해금	김현희 수석 서은영 부수석 김민숙 용은정 정현지
피리	성시영 수석 전소영 부수석 박경미 민성치 권혜림 김지현 권도윤 황다은
아쟁	김민정 수석 김상훈 부수석 김소형 김수진
타악	최종희 수석 남동현 부수석 허일두 박환빛누리 김태형
총무	김희정
악보	이의영
악기	한연호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공연제작2팀

팀장 김화영

팀원 이지향 이현주 채수경
신기루 류성광 김보름

공연장운영팀

팀장 한성국

팀원 전윤선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강민선
김지성 구지휴 최민주
이연서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이보람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팀원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 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김상두 서민원
김 정 박정길 전해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림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 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영상

의상소품

무대형정

변미라 천지연 객내영
민제희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이승미

팀원

김석경 윤문성 신대섭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

